

## 1과 평화의 시작

### 우리는 존귀하고 평등합니다

창세기 1:26-28; 시편 8:4-5

#### 1. 마음 열기



북한이탈주민 친구들의 이야기 (6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위의 영상을 함께 시청해 봅니다. 위 영상에서 지난 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이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힘겨운 여정과, 또 남한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되었던 차별과 편견의 경험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위 영상 속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와서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나눠 봅시다.

## 2. 생각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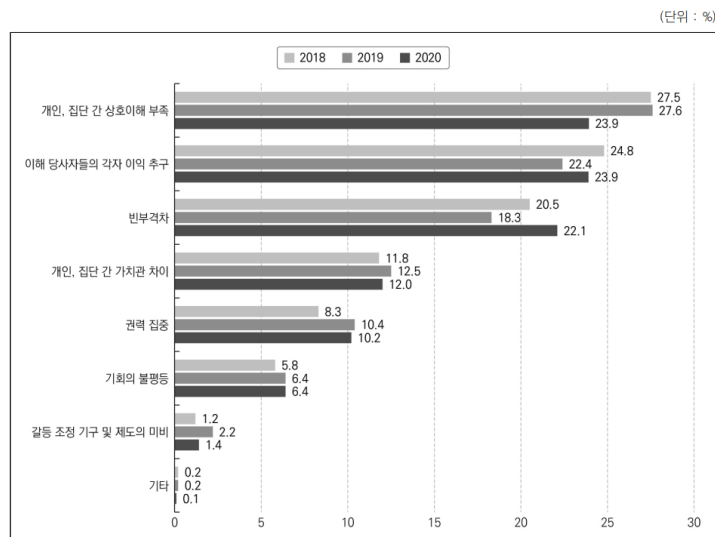
“평화”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평화와 비슷한 단어들을 왼편에, 그리고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들을 오른편에 넣어 봅시다.

유의어	<b>평화                  평和</b> (관계성)	반의어

위 표에 넣은 단어들을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봅시다. 우리가 넣은 단어들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그림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 갈등의 원인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도식화한 것입니다.<sup>1</sup>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에 대한 항목들은 모두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 넣은 평화에 대한 반의어와 아래 항목들을 비교해 보고 평화를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림 III-54] 사회갈등의 원인 인식 차이



주 : 1순위 응답 비율

<sup>1</sup>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1. 1.), p.70.

이번에는 평화의 문자적인 의미와 우리가 적은 유의어들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1) 평화의 문자적 의미

먼저, 평화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평화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平 : 균형

和 : 어우러짐

위 한자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평화란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 함께 어우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 2) 마음의 통일

그러나 우리가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물리적인 통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통일입니다.

### 3) 관계성 - 평등, 존중, 이해

평화는 그 단어 자체가 잘 표현해 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동등하고 조화로운 “관계성”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의 주요 갈등이 타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기심,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함에서 발생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 3. 말씀 속으로 -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본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의 본문입니다.

#### 1) 창세기 1:26-28 (존재, 평등)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6-28)

- 위 창세기 본문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 2) 시편 8:4-5 (가치, 존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시편 8:4-5)

- 위 시편 본문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처음 들려지고 읽혀지던 시대가 계급 제도가 당연시 여겨지고, 인권이나 평등의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수 천년 전의 시대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위 성경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 3) 팩스 로마나 vs 예수님의 평화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절대적인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바로 팩스 로마나(Pax Romana)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은 계급 제도를 만들었고, 수많은 노예들의 강제 노역의 기틀 위에 유지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존엄성을 박탈당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울뿐인 제국의 평화를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팩스 로마나(Pax Romana)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평안)는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허울뿐인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치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 4) 독립선언문의 인간 인식: 남북의 공유 가치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위 내용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선포되었던 3.1 독립선언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우리의 독립 정신의 근간이 되었던 위 독립선언서는 우리의 독립적인 주체성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평등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평등하고 존귀한 인간 이해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정립했던 것입니다.

#### 5) 평화의 시작: 평등하고 존귀한 인간 이해

한반도의 동포들은 물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고,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모습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 민족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 4. 삶 속으로

본 교재의 첫 과를 통해,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이 시작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탈북민들을 통해 통일의 시대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은 “먼저 온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탈북민들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탈북민들 문제는 장차 통일 시대에 또한 맞이하게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외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와 탈북민들은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단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통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통일은 서로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과를 정리하면서 탈북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해 봅시다.

#### 1) 탈북민의 아픔 공감하기

위에서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탈북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고,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She Fled Famine in North Korea, Then Died Poor in a Prosperous Land



뉴욕 타임즈 뉴스기사

위 내용은 뉴욕 타임즈가 2019년 7월 31일 탈북민 모자가 안타깝게도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외로이 죽어갔던 사건을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탈북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보도 내용과 관련 영상을 더 찾아 보시다.

<p>뉴스기사</p> <p>탈북, 모자의 죽음, 두 달간 아무도 몰랐다</p>	<p>시사 프로그램</p> <p>탈북 엄마의 마지막 눈물(창 259회)</p>
	

본 사건에 대한 국내 보도와 위 사건을 둘러싼 탈북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각자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공감 실천: 먼저 온 미래, 탈북민들에게 손 내밀기

그렇다면 우리가 탈북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탈북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음의 활동들을 통해 탈북민들의 상황과 마음을 살펴보고, 이들과 소통, 그리고 마음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 탈북민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통해보기

사실 탈북민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고,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찾아보고, 공감하는 메일이나 댓글을 달아 봅시다.

추천 유튜브 채널

장선비의 한양살이	아오지 언니TV
2019년에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장혁 씨가 운영하는 채널로 탈북의 과정과 남한에 정착 후 느낀 점들,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탈북하여 호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최금영씨가 운영하는 채널로 북한의 생활상과 남한 사회에 대해 느끼는 진솔한 생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TV - 북한의 것을 보다	탈북민 연극 '고슴도치'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탈북민들과의 흥미로운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연극으로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들의 아픔과 경험을 연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북한말로 일기 써 보기

우리가 탈북민을 만난다면 금방 대화가 가능할까요? 오랜 분단의 세월 동안 각자가 쓰는 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글동무(geuldongmu.org) 사이트에 접속하면 남북한어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일과를 이 번역기를 이용하여 북한말로 바꾸어서 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 활동들을 통해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 서로가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